

■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 아시아 지역 워크샵 보고자료집

인권정보자료실
Ic1.45
6-6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아시아 가난한 사람들의 견해

1996년 3월 8일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KOREA NGOs & CBOs FORUM for HABITAT II)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녹색고동, 아시아주거연합 한국위원회, 서울지역공부방연합, 사회개혁국민운동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도시연구소, 한국환경 사회정책연구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75-12 전화 : 3673-3032 전송 3673 -3278 ID 천리안 jbb3s)

1) 워크숍의 목적과 내용

1976년 캐나다에서 열린 HABITAT I(제1차 세계주거회의) 이후 20년만인 199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HABITAT II(제2차 세계주거회의)가 열리게 된다.

이번 제2차 워크숍은 아시아지역의 지역주민들이 도시개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세계주거회의를 준비하고, 또 나아가 아시아지역의 도시개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세계주거회의에 대한 준비를 위해 워크숍이 열리게 된다.

이런 워크숍의 목적은
1) 도시를 보는 관점의 변화
2)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념
3) 지속가능한 도시의 전망을 밝히는 것
4) Habitat II에 대한 민중의 인식을 높이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아시아 가난한 사람들의 견해**

그리고 각 국가에서는,
1) 내지 나라의 도시상황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
2) 도시지역에서 빈민이 처한 이유나 원인을 분석하고
3) 어떤 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시키기 위한 방안

4) 도시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
5) 도시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
6)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방안

1996년 3월 8일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KOREA NGOs & CBOs FORUM for HABITAT II)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녹색고통, 아시아주거연합 한국위원회, 서울지역공부방연합, 사회개혁국민운동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도시연구소, 한국환경 사회정책연구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75-12 전화 : 3673-3032 전송 3673 -3278 ID 천리안 jbb3s)

목 차

1. 필리핀 워크숍 개요	----- 3
1) 워크숍의 목적과 내용	
2) 참가자 구성	
3) 주요일정	
4) 지원단체 소개	
2. 한국민간위원회 참가 개요와 소감	----- 6
1) 개요	
2) 워크숍 참가 소감	
3. 한국의 주거현실과 우리의 행동과제	----- 13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국의 보고	----- 16
1) 말레이시아	
2) 태국	
3) 홍콩	
4) 일본	
5.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견해	----- 26
6. HABITAT II 가는 길	----- 28

1. 필리핀 워크숍 개요

1) 워크숍의 목적과 내용

1976년 캐나다에서 열린 HABITAT I(세계주거회의)에 이어 20년만에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HABITAT II(제2차 세계주거회의)가 열리게 된다.

이번 필리핀 워크숍은 아시아지역의 지역주민지도자, 활동가 등이 모여 제2차 세계주거회의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지역에서의 주거권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공동연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워크숍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 1) 도시를 보는 관점에 대한 지역지도자들의 생각이나 견해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 2)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공동의 지침을 발전시켜나가며
- 3) 지속가능한 도시의 전망을 가지고 범지구 실천계획을 분석하고
- 4) Habitat II에 대한 민중의 시각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각국가에서는,

- 1) 자기 나라의 도시상황에 관한 짚막한 배경 보고
- 2) 도시지역에서 빈민이 처한 이슈나 문제는 무엇인가
- 3)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대응노력; Habitat II에 참가하는 각국의 참가내용과 준비상황
- 4) 도시내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위한 주민들의 전망과 꿈; 구체적인 용어와 묘사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요소는 무엇인가
- 5) 지속가능한 도시의 전망과 그들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지역조직과 주민단체에서 생각하는 행동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여 함께 공유하였다.

2) 참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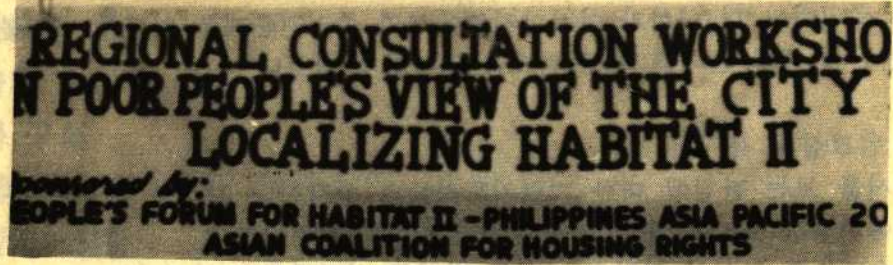
워크숍에 참가국 및 인원

한국(7명), 일본(1), 홍콩(2명), 태국(5명), 인도네시아(3명), 말레이시아(5명), 오스트레일리아(1명), 캄보디아(3명), 필리핀(7명), 인도(1명), 필리핀 스텝지(11명) 등 총 9개국 37명 참석

워크숍의 참가자는 지역지도자 또는 주민단체 지도자와 이스탄불회의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사람, Habitat II 준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후속작업과 관련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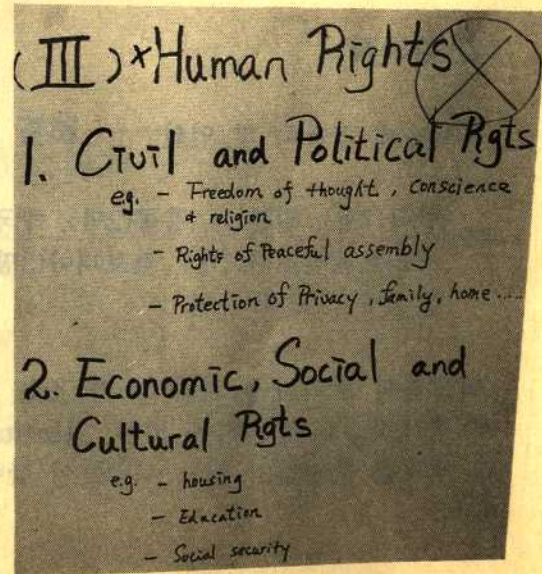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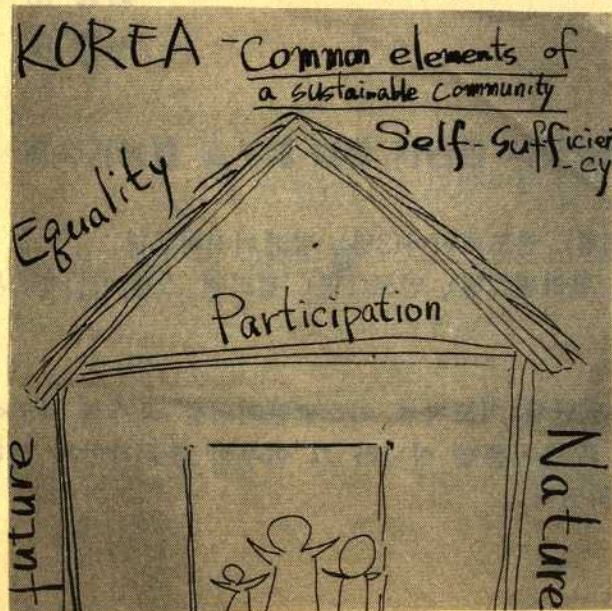
3) 주요일정

- 1월 14일 **도착**
 15일 **각국 보고서 공유**
 - 참가국의 독창적인 발표로 도시상황에 관한 보고와 각문제들에 관한 주민들의 반응을 들었다.



- 1월 16일 오전 **지속가능한 도시의 특징과 요소에 대한 교감 형성**
 - 각국의 보고를 기초로 도시사회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예를 들면 균형, 참여 등)에 대해 각 나라가 발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 전체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과 요소는 무엇인가

- 오후 **교감내용 발전시키기**
 - 교감내용을 가지고 전망을 구체적으로 "지역화"하는걸 의미한다. "지금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으로 가장 이상적인 동네'만들기를 하였다. 각 나라별로 도화지에 크레용과 색종이를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그리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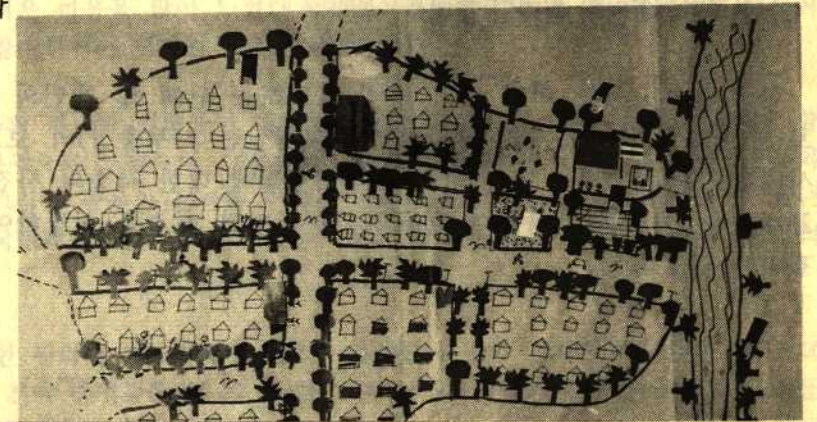


- 1월 17일 오전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Habitat II의 범지구실천계획에 대한 분석**
 - 그 가이드로는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특징을 참고하게 된다.

- 오후 **행동계획 만들기**
 - 각국에서는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행동계획을 만들었다. 이스탄불회의에서 NGO의 계획도 공유될것이고 이스탄불과 각국의 행사에 지역단체가 참가하게 될 것이기때문에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각 나라 위원회 대표단들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스탄불의 정상회담에서도 아시아의 공통된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하였다.



- 1월 18일 - 워크숍에 참여한 모든이들이 함께 만든 공동선언문 발표 및 필리핀 언론 그리고 세계 주요 언론 기자회견
 - 서울 도착



4) 지원 단체 소개

이번 워크숍을 위해 지원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아시아-태평양 2000과 ACHR, CO-TRAIN이 함께 워킹을 재정지원을 하였다. 사무국은 필리핀의 도시빈민협의회(Urban Poor Associates:UPA), 필리핀 지역조직(Community Organization of Philippines Enterprise:COPE), CO-TRAIN이 함께 하였다. 'Habitat II를 위한 주민 포럼'은 필리핀에 있는 주최단체다. 이 포럼은 도시빈민단체와 필리핀의 대부분의 단체(주민단체와 NGOs)들의 공동노력으로 만들어 졌다. (UPA, COPE, CO-TRAIN은 모두 주민포럼의 참가단체다.)

2. 한국 민간위 참가 개요와 소감

1) 한국민간위 워크숍 참가 개요

한국민간위원회는 총 8명(현지 통역1인 포함)이 참가하였다. 한국민간위원회는 민간위원회 상임집행위원, 실무자들로 구성된 참가단을 구성하여 사전준비 워크숍을 통하여 필리핀 워크숍을 준비하였다.

(1) 한국민간위원회 참가자

단장 : 유재현(경실련. 사무총장)

노기덕(주거연합 조직부장), 임근황 (동부지구 지부장), 임미경 (서울지역 공부방연합회)
이정운 (참여연대 간사), 이철규 (경실련 정책부장), 나효우 (민간위 사무국장)

전 주희 (통역)



(2) 한국민간위원회 참가단 준비

한국의 보고서는 이번 워크숍에 참가하는 단체 및 개인의 기관의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하였으며 유재현 상임집행위원(경실련 사무총장)의 보고와 노기덕씨(주거연합)의 사례발표를 하였다. 또한 한국의 주거현실에 대한 각종의 사진과 그림을 전시하였고, 발표내용을 OHP를 이용하여 한국의 도시 발전 배경을 설명하여 많은 나라로부터 관심과 질의가 있었다.

2) 필리핀 워크숍 참가 소감

필리핀 회의를 마치고

노기덕(주거연합 사무국장)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는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 조금 마음이 들떴다. 14일 새벽 너무 일찍 집에서 출발한 덕분에 공항 근처 음식점에서 여유있게 아침식사를 마치고 일행과 합류해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나름대로 기대했던바는 아시아 지역 여러나라의 주거상황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회의 이후 각 나라와 연결되는 주거권운동에 대한 전망을 기대하면서 회의에 임했다.

필리핀에 도착하면서 최초로 든 느낌은 '덥구나,내가 입고 있는 옷이 두껍구나' 였다.몇 시간만 비행기 타고 오면 세상이 이렇게 다르니 여유있는 사람들은 추운 계절을 피해 요런 곳에서 지내다가 살만하면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회의 장소인 안티폴로로 가는 동안 가솔린 차량이 뿔어내는 매연에 호홉 하기가 곤란했다.약 1시간 가량 가는 도중 길 옆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마을들이 눈에 들어왔다.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완전히 구분되 있는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일반적인 주거환경이 우리나라의 70년도 전후의 상황을 느끼게 했다.안티폴로에서의 4박5일의 회의기간 동안 각 나라의 상황과 공통적인 도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주체적인 도시계획을 설계 해 보면서 공동의 지향을 위한 공동 문안 작성 등 회의 기간 4박5일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다.

각 나라의 개발 상황과 관련해서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의 원주민들에게 대책없는 강제철거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몇 나라에서는 한국의 현대건설등 독점제벌들이 개발에 개입해서 한국에서와 같은 방식의 개발(공권력,건설업체,폭력세력등이 깊이 관여한)이 진행되는 형태를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많이 느꼈다.국가망신죄로 처벌되어야 할 자들이라 생각이 들었다.아뭏든 이번 회의에 참여하면서 몇가지 느끼고 배운 점은,

첫째,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의 가난한 민중들이 대책없는 개발 정책으로 인해 주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적으로 느꼈으며 그것은 각 나라의 문제이면서 범 아시아의 공동의 문제라는 점이 생각했고 그러한 공동의 문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연대해 공동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가 던져진 과제이고 국내적으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공유의 폭을 넓혀 내는것이 일차적 과제라 여겨졌다.

둘째, 회의를 준비하고진행한 필리핀 지도자,활동가들의 세심한 준비와 참가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때 그때의 민주적인 진행 방법등을 볼 수 있었고 여성 지도자들의 활동은 두들어진 점들이 보였다.그리고 지도자와 활동가의 체계적인 움직임,비중있는 지도자들이 더욱 열심히 회의에 참여하는 모습들은 많은 감동과 부러움으로 다가왔다.

셋째, 이번 회의에 함께 참여한 국내 식구간에 갖게 된 연대의식이라 생각한다.사실 국내에서도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외국 국제 회의에서 경실련,참여연대의 실무자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논의하고 공동작업을 해 본 경험을 통해 함께 연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졌다고 여겨진다.

넷째, 각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먼 나라 일로만 여겨졌던 일들이 가까운 이웃 동네의 일처럼 느껴진 느낌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게 된 점이 생각된다.

다섯째, 마지막 날 저녁에 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격의 없이 함께 춤추며 어울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과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은 역시 잘 놀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뭏든 회의 기간내내 한국 식구들은 조금만 틈이 있으면 놀지않고 필리핀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이곳 저곳을 방문하면서 그곳의 문화를 배웠다.(대부분 술집이었지만)그리고 회의에도 열심히 임했다. 나름대로 준비도 이것 저것 해 왔던것 같다.회의기간 내내 통역을 도맡아 해 준 전주희 수 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 주신 주거연합 대표님들과 지역 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세계주거회의의 아시아 워킹을 다녀와서

임미경(서울지역공방연합회)

이번의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준비를 위한 아시아 워킹에 참가하게 된것은 순전히 나를 좋아 해 주고 나에게 힘을 주려고했던 여러 선배들의 결과이다. 요즘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내게 바깥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라는 선배들의 속셈(?)도 한 몫을 했고 물론 거기에는 철거 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대안을 찾아오게 하는 의미도 있었다.

덕분에 나는 다른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 나라의 빈곤 문제와 철거의 문제는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것등을 느끼며 아연실색하였다.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계는 하나'라는 유행어처럼 실지로 내 살 곳으로 느끼며 체험했다.

떠나기전에는 언어에도 능하지 못한 내가 외국인들 만나서 어떻게 우리 현실을 알리고 그들의 것들을 소화할수 있을까 고민이되고 자신이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마음적 어려움이 있었다.

떠나기전 아시아 워킹을 위해서 1박을 하며 준비한 우리 한국팀들의 워킹에서도 마음이 무거웠던이다. 그러나 막상 자료들을 준비하고 공항에 도착했을때는 편한 마음이었고 필리핀에서의 회의 내내 난 한국에서 보다 더 편했다.

흔스럽게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것도 처음이고 외국행은 더 더구나 처음이었다.동행한 효우형과 경실련 이철규씨의 공항 수속의 능숙함을 따라했다. 비행기가 한국을 떠나 구름속으로 안겨갈때 그때서야 한국에서의 나의 일들,여러가지 골치 아픈 문제거리들이 내 머리를 떠났다. '그래 신나게 사람들과 부딪혀 보리라' 하며 마음속에서 환호성이 울려나왔다.

필리핀은 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미리 알고 있었지만 진짜 하늘에서 내려 본 필리핀은 세상에 흉수가 나면 가장 먼저 잠길듯 했다.마닐라에 도착하자마자 두꺼운 파카를 배낭 안에 쑤셔넣고 얇은 남방 차림으로 배낭을 댔는데도 무척 더웠다.진짜 남의 땅 이구나를 플랫폼에서 다른 색깔의 얼굴들과 알아들을수 없는 말들에서 실감을 하고 우리를 마중나온 필리핀 쪽 N.G.O 안내자들과 함께 회의 장소인 안티폴로로 향했다. 막상 회의 참가자들은 여성지도자와 활동가들이 많았고 활동들도 대단하였다. 유독 한국만 여자가 나 혼자 뿐이었다. 여기서도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를 한눈에 알아보는듯 했다.

회의는 장시간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 8시30분에 시작해서 저녁 9시30분경에 끝났으니까! 쉬는

틈틈히 그리고 밤시간에 만난 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인들과의 대화는 나에게 참으로 유익하였다.짧은 영어로 몸짓, 눈짓, 웃음으로 우리는 대화를 열심히 했다. 난 그것을 통하여 언어는 달라도 서로의 말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진지한 태도 참고 인내하는 눈망울을 보며 난 참 고맙고 감사했다.세상의 모든 일이 이런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엔 분쟁과 시기와 의심도 없을것이며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갈 곳 없이 내몰리는 사태도 일어나지 않을것이다.그리고 강제철거로 목숨을 잃는 사태(가장최근의 96년2월 용인 수지-신연속 열사)가 일어나지도 않을것이다.

어디나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은 비슷하고 주거권을 찾기위한 처절한 몸부림도 비슷한 양태를 띄었다.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던 빈 공가의 연쇄방화 같은것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도 빈민을 쫓아내기 위해 집단적으로 불을 지르고 강제 철거하는것들은 우리에게 슬픈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또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등에서 개발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의 개발방식(아무런 보상없이 현지인을 강제로적 물리력으로 몰아내는)에 대해 그곳 현지인들의 분노는 우리들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분노를 가지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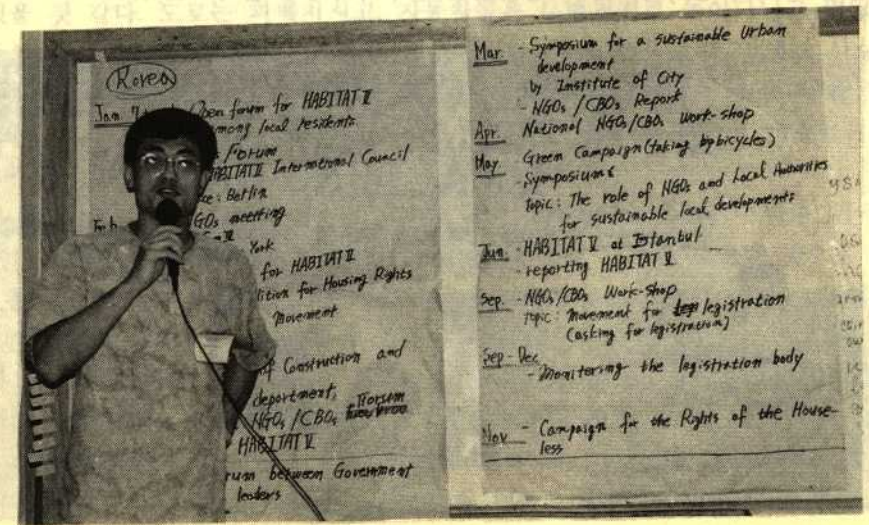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해 6개월전 그것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주인이 내보낼수있는 세입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 이라든가,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입자 보호가 우선시 되기 때문이라는것을 들으면서 우리도, 많은 아시아의 나라들도 그때가 오기를 희망해 보고 열심히 일할 많은 동지들의 얼굴을 잠시 생각했다.

참가한 주민 지도자들의 용기와 믿음은 대단한거 였다.우리나라의 70년대 초반을 연상케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열심히 부딪혀 나갔고 문제의식을 주민 스스로가 일깨우며 주민을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내게는 그렇게 크게만 보였다.

또한 필리핀의 활동가 덩키의 회의 진행(매끄러운 민주적 진행,통합,조절능력)은 나로하여금 매력을 느끼게했고 거리와 곳 곳에서 만난 필리핀 사람들의 마른 체구 속에서의 밝은 표정과 미소는 내 마음을 밝게 해주었다.

9개국의 30여명의 주민지도자와 활동가들이 모여 4박5일간 각 나라의 주거상황과 빈민의 문제, 철거에 대응하는 주민들의 단결된 힘과 의지들을 나누고 앞으로 각 나라의 철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지속가능한 도시요소들, 인간 중심의 주거권의 실현방법,아시아 연대등에 대해 열띤 이야기를 했다.

난 회의를 통해서보다도 개인들의 의지와 그들의 반짝거리는 눈망울과 삶의 자세를 보며 많은것을 느끼고 배웠다. 5일간의 여정 속에서 수면을 취한 시간은 고작 18시간이지만 난 피곤하지 않았다.결국은 다른나라 사람들로 부터 에너지 걸(Energy girl)이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회의 이외의 시간에도 우리는 열심히 놀며 배웠다.(??)



필리핀을 다녀와서

임근황(주거연합 동부지구 지부장)

생전처음 외국 나들이에 대한 한가닥의 기대와 이국의 생소한 환경에 일말의 불안, 언어 두려움 들 복잡한 심경을 안고 3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마닐라 아키노 공항.

첫느낌은 잿빛의 황막한 도시였다.

기온은 후덥지근 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굼뻐다.

하늘은 뿌옇고 거리는 무질서했고 소음또한 만만치 않았다. 소란스런 도시를 질주해서 도착한 안티폴로라는 휴양도시. 버지니아 리조트. 그곳은 지금까지의 외향적 풍경과는 사뭇 다르게 그런 데로 손님을 맞을 정돈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아담한 공간에는 회의실, 숙소, 식당 휴게소, 야외 수영장 등이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 우리는 여장을 풀었다. 도착 당일 저녁시간 첫 일정으로 각 나라 참가자 개인 소개의 시간을 가졌고 다음날 오전부터 4박 5일의 팍팍한 일정이 진행되었다. 각 나라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들으면서 가나한 사람들은 국가와 인종에 상관없이 억압과 착취의 사슬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그 수단과 방법 또한 모든 나라가 비슷했다.

이번 워크샵의 절정은 3일째 되는 날의 과제였다.

가난한 사람의 시각으로 본 미래지향적 도시, 도시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개발과 건설에 관한 청사진 설계였다.

팍팍한 일정이었지만 주회야주(晝會夜酒)의 고난속에서 마친 4박 5일의 워크샵에서 남은게 있다면 열의와 정성을 다해 워크샵 진행을 도왔던 코-트레인 소속 활동가 여러분의 헌신성이 단연 돋보였고, 특히 진행을 맡았던 덩키여사의 노력은 빛났다.

발표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짧게 요약해서 메끄럽게 토론을 진행해내는 솜씨하며, 합의 도출에 있어서 끝까지 참고 진지하게 기다려주는 자세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상황과 여러사람을 접하면서 사람과 인식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였다.

아쉬움이 있다면 일정이 너무 짧아서 현장 방문의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고 언어가 소통되지 않은 관계로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전달 받지 못해서 깃이 있는 토론에 참여하지 못했음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끝으로 이 글을 통해서 통역하느라 고생만았던 전주희씨에게 감사드린다.



아시아 지역협력 워크숍에 참가한 뒤

이철규(경실련 정책부장)

아시아 민간단체간의 "지역협력을 위한 워크숍"이 필리핀의 안티폴라에서 4일간(1.14~17) 개최됐다. 이 워크숍은 오는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96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앞두고 아시아 민간단체(NGO/CBO)의 공동의 과제와 공동의 행동계획을 마련할 목적으로 준비된 회의였다. 주최국인 필리핀을 비롯 9개 도시 50여명의 지역운동지도자들이 참석해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리나라는 전빈협, 주거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등에서 7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해 미리 준비해간 우리의 주거현실과 주거권운동의 현황을 발표했다.

워크숍은 주제에 걸맞게('빈민이 바라본 도시') '도시빈민의 관점'이 특히 강조됐다. 이것은 필리핀을 비롯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나라의 지역상황이 적극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에 비해 한국, 호주, 일본 등은 상대적으로 발전된 도시개발전략에 관심을 보였다. 리우환경회의, WSSD, HABITAT II 등 국제회의의 때마다 환경, 복지, 주거권 등의 책임과 분담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등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다반사지만, 이번 워크숍은 참가국 상호간의 충분한 신뢰를 기반으로 NGO공동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다함께 노력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예매하게 선·후진국 사이에 기여 곤란을 겪곤 했지만, 한국의 참가자들이 주로 도시빈민운동을 하는 지역대표들로 이뤄졌기 때문에 저개발된 도시의 분위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들도 우리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60~70년대 분위기를 연상시킨 마닐라의 도시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도 그들 저개발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폭격을 받은 듯 반쯤 부서진 채 방치된 건물들과 허름한 담벼락 위의 낙서들. 도심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빈민지역과 그 안에서 헐벗은 채 뛰어노는 어린이들. 자동차가 설 때마다 창가로 달려들어 손을 내미는 어린이들. 우리 일행이 마닐라 공항에 내리면서 목격한 단면들이다.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마닐라 메트로 시티는 하나의 거대한 슬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도로는 파헤쳐지고, 자동차들은 무법천지로 돌아다니고 있었으며, 마구 뿔어대는 자동차의 매연으로 숨쉬기가 곤란할 지경이었다. 상점이나 은행 앞에는 사설 경찰들이 기관총을 든 채 지키고 있었다. 부유층들은 그들끼리 따로 구역을 만들어 높은 담을 쌓고 그 안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살고 있었다. 물론 입구에는 일반인을 통제하는 사설 경찰들이 제복을 입고 서 있었으며, 부유층들은 대부분 일제자동차를 굴리고 있었다.

빈부격차가 매우 컸지만 필리핀사람들은 오히려 낙천적이었다. 이곳에 유학과 워크숍동안 도움을 준 한국인유학생으로부터 들은 얘기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충을 들고 시가전을 하고, 공권력과 대치하는 모습을 그렸던 것과는 전혀 딴 판이었다. 물론 필리핀 남부의 다른 섬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경제발전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유학생은 필리핀의 뿌리깊은 계급차별과 봉건적 잔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각 마을마다 정신적 지주가 있고 그들이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것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들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믿음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한다. 성당의 신부들도 마을의 지주부류에 속하는데, 필리핀의 80%가 카톨릭신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당연

한 일이었다.

일행이 잠시 시간을 내 찾은 안티폴로라는 성당은, 마침 일요일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미사를 보고 있었다. 비록 보잘 것 없지만 성당은 마을의 중심지며, 이곳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됐고 사람들이 집중돼 있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토속신앙과 무속신앙이 성당안에 공존해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을 인정하는 필리핀인들의 낙천성이 국민성 때문인지, 체념 때문인지, 아니면 무더위에 적응하는 오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아무튼 외국의 NGO들이 자주 찾았다는 소위 '운동권'주점에서 경쾌한 70년대의 윙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필리핀의 '하비타트를 위한 민중포럼 (People's Forum for HABITAT II)'에서 주최했고 '아시아태평양 2000', 'ACHR', 'CO-TRAIN' 등의 단체가 후원을 했다. 지역공동체와 도시의 개발방향에 대한 참가국의 보고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공동의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워크숍은 지역에 기반한 현장의 운동가들이 직접 회의에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발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생생한 토론이 가능했다. 또한 그림과 사진, 슬라이드 등 입체적 수단을 동원해 각국의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지역상황과 미래의 꿈을 열성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의 참가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 좋은 평판을 얻었고, 나중에는 뚜렷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필리핀과 함께 지역 네트워크의 공동책임국으로 선출되기까지 했다. 이렇게 된 데는 우리가 가져간 '김치'전략이 일정정도 주요했던 것 같다. 공동의 결의문에 우리가 제기한 주제들이 상당정도 반영된 것도 작은 성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주거현실과 우리의 행동과제

필리핀 워크숍에 참가한 참가단은 1박 2일의 사전 워크숍에서 한국의 주거현실과 우리의 행동과제를 작성하였다. 이 문서는 필리핀회의에서 발표되었다. 발표자료 원문을 그대로 실는다.(편집자 주.)

1. 한국의 일반적 상황과 주거현실

1) 한국사회의 일반적 상황

우리사회는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세계 15위의 GNP, 세계 12위의 무역구가로 발돋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짐승을 굶어야 하는 아동이 수천명에 달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60 - 70%가 불안정한 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빈민의 경우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양극화된 상황에 처해있다.

2) 도시민의 주거상황

우리 사회의 무주택자율은 전국 평균 60%이고 서울의 경우 70%에 달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살인적 강제철거는 도시환경 미화라는 미명아래 오늘에 계속되고 있으며 1995년에 들어서만도 20여개지역에서 강제철거가 자행되었다. 또한 무주택자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권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전월세 값의 폭등으로 40여명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3) 수도권 중심의 개발에 따른 불균등 발전의 심화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80%에 이르고 있다. 지난 60년대부터 서울을 중심으로한 집중개발 전략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종 시설과 서비스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차지하는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으로써 주택난, 교통혼잡, 환경파괴, 고용악화, 교육기회의 불균등, 여성 및 어린이 학대 등 갖가지의 사회적문제를 발생시켰다. 물려드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수도권 주변에 여러개의 신도시를 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인구 유입, 교통난, 환경파괴 등을 더욱 가중 시켰다.

4) 수도권 이외의 도시주거문제

지역불균등 발전으로 수도권이외의 지역은 전반적으로 저개발 또는 낙후된 상태이다. 지방자치제가 최근에야 실시됨으로써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역의 최대현안은 독립적인 재정확보와 이를 위한 지역개발이다.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부족한 실정이다.

2. 지역주민의 이슈와 우리의 행동과제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정 주거권을 확보하는 노력과 지금까지의 무분별한 개발전략을 수정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이슈

(1) 주거문제 - 주거권 확보를 위한 노력

우리 사회의 경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주거기준 및 적정주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거권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무주택자가 사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요원하기만 하다.

(2) 교통문제 -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도로나 교통시설 등이 사람보다는 차량을 우선하여 만들어져 일반사람들은 물론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 등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대중교통시설이 불충분해 많은 불편이 따르고 이에 따라 자가용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커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3) 환경문제 -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무분별한 개발은 환경파괴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온산, 울산, 영광 등의 지역과 낙동강, 영산강 등 강물과 바다의 오염은 주민들의 건강과 생계수단을 위협하고 있다.

(4) 고용 및 아동 여성의 문제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이에 따른 교육, 복지, 청소년, 여성, 아동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5) 사회복지 - 고용보장과 국민생활최저선확보를 위한 활동

일반적인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빈민층을 위한 복지시설 및 제도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성장일변도 정책으로 복지에 대한 인식이 극히 저조하다.

(6) 국토 및 도시계획

수도권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도시로 인구와 산업과 사회기반시설이 편중되어 있다.

(7) 지역개발과정에서의 참여 - 지자체와 지역주민 공동의 노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경우 독립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채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환경파괴는 물론 환경을 보존하려는 지역주민과 개발을 진행하는 개발주체들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8) 농어촌문제

UR등 농정에 대한 정책부재로 이농현상이 증대하고 농어민의 생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우리의 행동과제

- ☞ 최저 적정기준을 확보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 ☞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보호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 사람중심의 교통시설 및 교통정책 수립
- ☞ 대중교통을 충분히 확보한다.
- ☞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을 확산하고
- ☞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방자치체와 지역주민 등 지역거주자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 ☞ 공공탁아시설설치, 공공아동교육시설 확보 등을 통해 여성과 아동의 지위를 보장하고 고용을 안정화 시킨다.
- ☞ 소득, 의료, 건강 고용, 주거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등 전 생활영역에서의 국민생활최저선확보를 위한 국민생활 최저주거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한다.
- ☞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도권 중심의 개발전략을 포기하고 지역간 노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 ☞ 지역의 중심도시를 적극 육성해 인구분산효과를 노려야 한다.
- ☞ 지역의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 자족적인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 ☞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계획을 위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역개발전략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 ☞ 독립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지역주민들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모색한다.
- ☞ 농어촌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해 농어민의 실질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위한 제시민, 사회단체가 연대한다.
해의 연대세력을 확보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국의 보고

다음은 워크숍에서 발표되었던 각 나라의 도시상황, 주민의 이슈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해 발표되었던 자료를 요약 정리하였다. (편집자 주.)

1.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빠른 경제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8년 동안에 성장비율이 8%에 이르고 있으며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나라는 비교적 부유하며 커다란 주택들과 고층건물들 고속도로 골프장들이 생겨났다.

도시에는 일찍부터 농촌의 가난과 고생으로 인해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으며 특히 1969년의 인종 충돌이 있은 후에 늦게나마 정부는 농촌으로부터 말레이인들의 집단거주를 장려하였다.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당시 도시인구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들에 대해 인종균형을 창출해 내는데 있었다.

말레이시아 인구는 현재 약 1,800만이다. 이중 약 40%가량이 도시 중심부에 몰려있다.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만 거의 200만 가량의 사람이 있다. 2000년 까지 약 1200만 (인구의 51%)의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의 도시들에 살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많은 인종집단을 이루게 될 것이다.

도시 이주민의 대부분이 노동자와 택시운전사 소수의 장사꾼이 적은 수입의 일에 종사하고 있다. 도시 사람의 약 60%정도가 적게는 한달에 RM750(미화 200달러)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도시 이주민 중 많은 수가 집을 사거나 세를 얻을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땅이나 방해받지 않는 숲, 간척지 등에 맨손으로 천막을 짓는다. 1991년 쿠알라룸푸르에는 30,564개의 주거단위 또는 204,459명의 사람들로 추정되는 120개의 천막촌이 있었다. 인종비율을 보면 33%의 말레이시아인, 52%의 중국인 그리고 12%의 인도인이 도시의 인구를 차지한다.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땅이 부족하다. 쿠알라룸푸르시와 당국에서는 빈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을 빼앗기를 원한다. 쿠알라룸푸르시는 2000년까지 도시의 천막촌들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천막촌의 가난한 사람들과 다른 천막을 짓고자 하는 가난한 계획자들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주거는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75년~1990년 까지의 여러가지의 5개년 계획동안 단지 7%의 예산이 주택정책을 위해 할애되었다. 주택형태의 대부분은 고층 플랫(같은층의 열러방을 한 가구가 전용하는 아파트)이며 간혹 방 하나뿐인 곳도 있지만 가족들이 거주하기에는 부적당하다. 쓰레기와 하수사정은 빈약하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으로나 오락적인 편의시설이 거의 드물다. 강조할 것은 집 값이 고가 또는 증가의 것들이 지어졌다라는 것이다. 1991~1993년 사이 정부는 40,000호의 싼값의 아파트를 지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9,048호만을 지었을 뿐이다. 더 많은 싼값의 아파트들이 정부에 의해 더 많이 지어져야 한다.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개인적 개발자들은 낮은 가격의 집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이익이 없기 때문에 흥미를 끌지 못한다. 말레이시아의 4차 계획 기간에 204,170호의 집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그 중 19,170호의 싼값의 주택이 건설되었다. 개발자들이 이익에 대해 집착을 하기 때문에 집 값을 조절을 못한다. 그래서 집값이 너무 올라 보통인이 쓸만한 집을 살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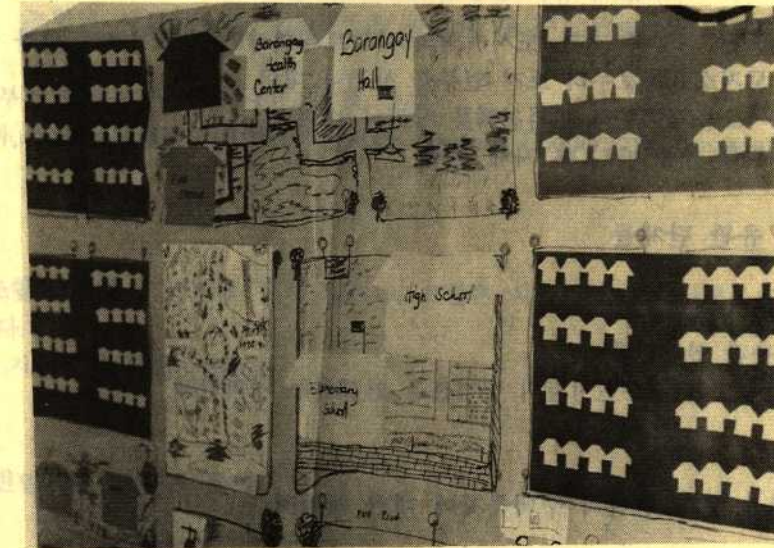
주거는 말레이시아의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빈민층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중산층의 문제이기도 하다.

<무단거주자(빈민)가 아닌 도시 개척자>

말레이시아에서는 개인 소유지의 돈이 없이 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무단거주자'(squatter)라는 말을 거부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도시개척자(Urban Pioneer)라고 사용한다.

도시 개척자들이 많이 철거 되었고 주거지역에서 수천 명이 어디로 가야할지 그들은 모른다. 임시 long house(방이 좁고 상황이 아주 안 좋음)-우리나라의 임시 천막 같은 것-에서 한방에 온 식구가 산다. 철거된 후 long house로 갈때는 1,2년쯤 살것을 기대하지만 아무 보상없이 10~12년 살아야 한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 때문에 철거싸움을 하고 있다. 값싼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철거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살기에는 어렵다. 이런 발전문제는 인간적 어려움과 환경적 위험까지(홍수, 침식등)까지 등장 시킨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파괴와 철거를 중단할것을 주장하며 계속 저항하고 있다.

이 거주지는 1850년 서마트라(sumatra)로 부터 이주해서 생겨났다. 1930~1960년대까지 지역의 3분의 2를 주석 광산회사를 위해 정부에서는 땅을 빌려 주었다. 그로인해 그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4층짜리 4개방 집을 분양받기로 약속받았으나 개발자들은 12층짜리 2개의 방을 지었다. 그곳에서 많은 시구들이 생활하고 있다. 또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강요당하고 설득 당하여 쫓겨났다. 이에 대해 저항하였지만 정부의 철거로 인해 실패 했다. 1995년 2월 여자와 아이들이 이 일로 간헐고 올해 초 법적으로부터 개발자들이 그들을 철거시키는데 정지를 당하여 승소를 하였다. 또 140여명의 사람들이 철도 관계 종사자들이다. 80년전부터 철도주변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들은 땅을 빌리는 댓가로 한달에 RM15를 지불한다. 그들은 집과 상업을 위해 지역이 발전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 또한 squatter와 같은 처지로 여겨지고 있다.



2. 태 국

1) 태국의 빈민촌의 개관

과거 30년동안 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도시지역에 집중되면서 농촌지역은 황폐화되면서 해마다 32.3%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다. 방콕 중심 수도권 주변에 몰린 이러한 유입인구는 저학력, 미숙련자들이었기 때문에 저소득이었고, 고용은 불안정했다. 그 결과, 이들이 거주하는 빈민촌이 형성되었고 빈민촌이 늘어감에 따라 태국의 주요한 도시문제가 되었다. 1995년 현재, 태국에 있는 1,864개의 빈민촌 중 1,041개는 방콕 중심 수도권에, 480개는 그 주변지역에 343개는 다른 67개 지방중심부에 있다. 빈민촌의 전체인구는 약 1백5천만이다. 이 중 약 63%는 사유지에, 나머지는 다양한 정부기관 소유의 토지에 살고있다.

2) 빈민촌 문제

- ① 경제적, 직업적 문제
- ② 거주불안정 문제
- ③ 공동체의 육체적 환경적 문제
- ④ 법적 지위 문제
- ⑤ 교육적 문제
- ⑥ 건강문제
- ⑦ 참정권 문제

이중 거주불안정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약 20-30개의 빈민촌이 해마다 철거되었고 아직도 철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

빈민철거에서 야기된 세가지 중요한 효과는,

- ① 경제적으로, 철거는 건설이나 기반시설(도로, 보도, 전기, 수도공급)에 대한 빈민의 공동투자의 손실을 가져오고, 빈민들은 비공식적인 가내생산이 많으므로 생산지를 없애게 된다.
- ② 사회적으로, 철거는 빈민의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 ③ 정치적으로 철거는 정신적 억압,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고, 다른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

3) 빈민의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책

- ① 교외의 새로운 공동체 계획, 도시지역의 아파트계획같은 정부기구에 의한 공동 주거 계획
- ② 토지공유: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일부를 사거나 대여
- ③ 재정리: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전체를 사거나 대여
- ④ 재할당: 토지를 공동 매입 후 자체 분배

4) 빈민지역 유관 단체들

- ① 빈민촌기반 단체
- ② 인접빈민촌간 연결단체
- ③ 방콕중심 수도권과 주변지방의 빈민촌을 연결하는 지역단체.

조합식 과정을 통해 빈민의 주택문제에 대한 해결책

1987-1995동안, 해마다 약 20개 빈민촌이 철거되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빈민들 자체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축 그룹을 만들어 주택조합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현재 약 30개의 주택조합이 있다.

주택조합의 성립에 관한 그룹형성의 개발

- ① 빈민의 저축그룹형성
- ② 공동규율제정
- ③ 상호협조와 상호독립증가
- ④ 다른 기관에 신뢰감을 주기위해 조합으로 전환

⑤ 조합에 대한 이해를 가진 그룹이나 지도자형성

구성원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조합

- ① 조합은 토지소유자와 이주비용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고 이주시기를 연장하도록 시도한다.
- ② 조합은 새 거주지에 적당한 토지를 모색한다.
- ③ 적당한 토지를 얻기위한 대부를 위해 조합은 정부의 재정기관을 접촉한다.
- ④ 조합은 책임있는 정부기관을 접촉하기 위해 새 토지를 갖는다.
- ⑤ 결과적으로, 조합은 저축을 모아 재정기관에 지불할 책임이 있다.

빈민촌의 조합운영 : 빈민촌의 주택조합은 구성원에게 집을 제공하기위해 토지를 찾는 것이 첫번째 단계이다. 조합구성원의 저수입은 공동체 개발을 위한 운영에 쓰인다.

빈민촌 조합의 구성원 : 빈민촌 조합은 철거를 직면한 빈민들이므로 서로 단결해야 한다.

빈민촌 조합의 재정원 : 1)구성원의 저금, 2)정부의 재정기관

토지운영과 조합원사이에 토지분배

- ① 새 거주지에 대한 결정과정
 - 토지의 질은 삶의 방식, 경제구조, 교통, 가족의 지불능력에 맞아야 한다.
 - 빈민촌 구성원은 주거공동체의 개발을 계획하고 결정할 자유가 있다.
- ② 공동체 과정 : 조합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절한 새 주거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진행중인 과정이다.
- ③ 조합기구와 외부기관 사이를 조정하는 운동의 출현
이 조정의 결과, 도시공동체주거조합협회(Urban Housing Cooperative Association)가 성립되었다.

한계

- ① 정부의 법이 조합의 성장과 개발을 돕지 않는다. 조합은 이윤기관이 아님에도 고율의 세금을 물도록 되어있다.
- ②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남부지방도시의 빈민촌이 직면한 문제

- ① 취약한 주택
- ② 기본적인 시설부족
- ③ 환경문제
- ④ 다른 계층 사람들의 인식과 수용부족

이 지역의 운하 주변에는 약 800가구가 운하를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은 현재 살고있는 토지에 살 권리가 있다.

과정

- ① 운하 주변의 모든 빈민촌이 운하보존관련 일을 하거나 개발을 돕도록 조정하기

- ② 쓰레기를 운하에 버리는 공장들을 조사하는 방법을 결정할 자치권을 조정하기
- ③ 빈민촌과 쓰레기방출 공장의 존재를 알아내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알릴 지방교육기관을 조정하기
- ④ 빈민촌, 정부, 사유자간에 문제를 해결할 공동조사제도 만들기

빈민공동체들이 현재 점유지에 사는 것에 자신있는 이유

- ① 정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빈민단체의 성장과 운동
- ② 빈민공동체는 운하주변 환경 보존을 위한 자치, 교육기관을 조정하는 센터가 되어왔다.
- ③ 빈민공동체는 도시환경, 환경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공동체 기관의 경제력 강화(저축)

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계획에 참여한 빈민수는 1,500명으로 5백만 바트에 이르는 저금을 했다.

문제점과 장애 : 지역 정부는 빈민공동체에게 예산을 분배하지 않는다.

결론과 권고

빈민촌은 도시화와 도시경제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도시가 빈민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한 빈민은 일자리를 제공받기 위해 도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빈민촌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가져야한다. 빈민은 사회적 개발과 그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이익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어도 다섯 가지 지원 방안을 수행해야 한다.

- ① 사유자나 정부 양쪽으로부터 토지이용을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토지이용을 조절할 것. 빈민은 도시내에서 일정 몫의 토지를 받아야한다.
- ② 정부는 빈민들을 위해 자금이나 장기저리대부, 수여등의 형식으로 예산을 배당해야 한다.
- ③ 정부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 빈민들의 주거권, 비공식분야에서 그들의 직업, 사회복지를 보호하는 법의 제정
 - 세금, 토지, 조합, 환경법등 빈민의 자체개발에 장애가 되는 법의 개정
- ④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발에 빈민단체의 참여를 증진시킬 것.
- ⑤ 정부의 구조와 제도는 정부기구가 성공적으로 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의무를 분명하고 적절하게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은 줄이고 문제에 더 밀접한 지방기구에 이전해야 한다. 더 중요하게는, 빈민들이 이 구조에 참여해야 한다.



3. 홍콩

1-1 개요

1966년에 영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ICESCR)에 서명하고 1976년에 비준하였다.이 규약에 의하면 영국은 영국연방나라들에게 법적 행정적 수단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지난 20년간 영국과 홍콩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1991년에 국내 법안을 통한 비준을 강력히 주장하는 시민 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HongKong Bill of Rights(홍콩인권선언)에서 ICESCR이 제외되었다.이에대해 "이러한 권리는 법원에서 재정될 수 없다"라는 정부의 정당화 발언은 조약 (1)에 위반되는 것이다.

1-2 일반시민에게 불 분명한 문서초안 작성과정

지금까지 홍콩 정부보고서에 시민단체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회의가 마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매우 한정된 사항들에게만 공개되었고 NGO와 같은 일반 시민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할 수 없었다.뿐만아니라 보고서가 제출되지 전에 검토할수도 없었다.

1-3 정부보고서의 결함

이러한 '블랙박스(Black Box)'메카니즘의 역효과는 다음과 같은 정부보고서의 한계로 반영된다.

- 1)내용의 축소화(Under-reporting)
- 2)사실의 왜곡화
- 3)부정확성

1-4 적절한 주택보급에대한 권리(Rights to Adequate Housing)

조항 11(1)은 "적절한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적절한 생활 수준의 권리와 지속적 생활수준향상"을 인정한다.이 조항은 또한 다음과 같은 원칙과 의무가 따른다.

<1-4.1 존중 Respect>

국가는 국민이 누릴수 있는 권리를 법전 절차와 헌법을 통해 존중해 주어야 한다. 홍콩에서는 주거권리와 관계된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홍콩 시민의 주거권리는 존중되지 않았다.

<1-4.2 보장 Ensure>

정부는 지주(Landlords)나 지역 개발자들 같은 제 3자에 의해 당하는 주거권리의 침해로 부터 시민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홍콩의 경우 규약이 정부 정책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와 입법회의는 주택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을 수정하는데 진척이 없다.

<1-4.3 촉진 Promote>

국가는 법적으로 모든 빈민촌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홍콩에선 놀라운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택문제를 해결할 방침은 구상하지 않는다.

제2과 주택보급권리의 침해

2-1 홍콩의 주택보급 상황

홍콩은 자유경쟁주의 정책으로 알려진 자본주의 이지만 그의 정부는 주택 프로그램 통제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48%가 공공부문에 수용되었고 52%가 민간 부문에 남아있다.

<공공주택의 역사적 발전>

2-2 정부가 도심지 다시 점유

1953년 부터 20년간 정부는 자연재해나 산업개발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주택을 마련해 주는데 심여를 기울여 왔다.

2-3 공공주택정책의 사유화 (Privatisation)

2-4 새 지역 개발-도시 부근에 신도시 개발

2-5 경제적 발전에 기여

공공주택개발은 이윤 중심적이었고 이것은 홍콩의 저소득층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홍콩 주택문제의 중점>

2-6 토지가격 상승

2-7 130만명 불량주택에 거주

저소득층 시민들은 주택문제에서 방치되었다.

2-8 고속 경제성장 vs 미흡한 주택건설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주택건설 지출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빈민층은 홍콩의 경제성장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9 주택권리 수행

ICESCR 과 ICCPR을 시민이 누려야할 주거권리를 언급하였다. 하지만 홍콩에서는 이러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고있다. 제시된 권리들과 이에 따른 실태

<2-9.1 주택비 부담>

1)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토지가격

1979년 부터 1993년 까지 사유가정 주택(private domestic building)은 47% 올랐다.

2)홍콩의 고가 임대료

3)시민을 도울수있는 정책결립

<2-9.2 안전한 생활상태>

1) 슬럼가 없애기

2) 개인 건설회사 퇴거시킴에 의해 500,000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된다.

3) 입법부는 개인 건설회사를 선호한다.

4) 새 주택마련 책임회피 : 건설회사와 정부는 각 각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새 주택 공급 문제를 상대방의 책임으로 떠맡긴다.

5) 도심지 새 단장- 고급 주택지화 과정

재개발 계획은 슬럼화한 주택가를 고급 주택지화 하는 과정이고 기존의 주민은 재개발된 빌딩의 임대료를 부담할 능력이 안된다.

6) 개인 건설회사의 위협 : 주민의 임차 포기를 위해 주인의 위협과 협박이 늘어난다.

<2-9.3 적절한 주택마련 기회>

1) 공공주택 요구를 억압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

2) 상층샌드위치 계급(월수입 HKD 22,000~44,000)

정부는 이 계급을 위해 아파트를 건설하여 주택고가로 인해 집 장만을 못하는 40,000가구중 이계급에 해당하는 13,000가구만 혜택을 받을것이다.

3) 하층 샌드위치 계급 : 월수입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수준을 능가하여 해당이 안되지만 주택가격 상승에 의하여 주택을 마련할수없는 사람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주택마련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4)하층계급 :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은 저 소득층에서도 밀려나 공공임대 주택 보급에서 waiting list에만 이름이 올려진다.

<2-9.4 바람직한 생활환경>

1) "우리 숙박인" Cage-home lodgers

한 방안에 침대가 줄지어있고 한 사람당 하나의 침대를 소유한다. 100명정도 수용하는 빌딩에 화장실은 1개~2개 이고 공부방이 한개 있다. 주로 혼자사는 노인들

2)복합적 박탈 Multi-deprivation

위와같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월수입의 거의 절반을 임대료로 낸다. 이들은 주거환경과 노후 보장도 받지 못하고 복합적 박탈 상태에 있다.

3)저소득층 독신자들

Cage-home 문제는 병산의 일각이다. 약 50,000명의 독신자들이 불량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4)간막이식으로 한 아파트 분할하여 7~8가구가 같이 산다.

5)낮은 가정주택의 옥상에 집을 짓고 사는 "옥상의 오두막 주민들"

6)간이 주택 파손된 공공주택과 거리등의 불량주택 거주자들

<2-9.5 선택할 권리>

1)빈민층에겐 값이 비싼 도심지를 선택할 권리 없음

<2-9.6 차별대우 금지>

waiting list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대우 부유한 사람에게 주택제공 우대,저소득 독신자들 차별대우,이민자들에대한 차별대우가 실태이다.

<2-9.7 참여하고 관리할 권리>

홍콩의 주택문제를 다루는 기관들은 풀뿌리 대표자들이 거의없고 서로간의 이해관계도 형성되어 있지않다. 아파트 건설도 정부와 개인 건설회사가 주도한다.

2-10 권의사항

정부에 고하는 우리의 요구,

1. 주거권리가 포함되어 비준된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
2. 정책 방침에 규약 반영
3. 주거권리 침해하는 모든 법을 개정
4. 모든 주택문제를 관할하는 중앙기관설립
5. 상승하는 토지가와 임대료를 조정할 법적 수단 마련
6.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고가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지원
7.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늘림
8. 차별대우 중지
9.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주택과 서비스마련
10. 강제철거금지와 재개발지역 주민들에게 보상및 주택마련
11. 토지와 주택에 관한 정책 제정에 시민이 참여할수있는 통로 마련



4. 일본

고베는 일본에서 여섯번째 큰 도시로 인구는 약 148만명이었고 일본 외국무역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지진 이후 고베의 피해상황

1995년 1월 17일 새벽 6.8리치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총 579,259 가구중 100,209가구가 무너지고, 107,074 가구가 크게 파손되었으며, 183,436 가구가 부분 파손되었다.

지진 이전의 고베

- 1) 주택의 형태는 목재, 타일, 철강, 콘크리트 등 재료에 따라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 2) 50%가 세대주이고 50%가 세입자 : 일본 평균 가옥주는 전체의 61%이다.
- 3) 주택시장 : 주택시장은 상공부개발에 의해 결정되는 땅값에 따라 좌우된다. 일본의 주택사유화 정책 이후 부동산 가격은 1990년대 초기까지 올랐는데 거대한 현금이 과잉투자됨으로써 전국적으로 물가가 올랐다. 공공주택비율은 10 채 미만이다. 따라서 수요 - 공급선을 따라가지 못한다. 앞으로 3년간 77,000 세대의 새로운 공공주택이

지어지지 않을 경우 엄청난 무주택자가 생겨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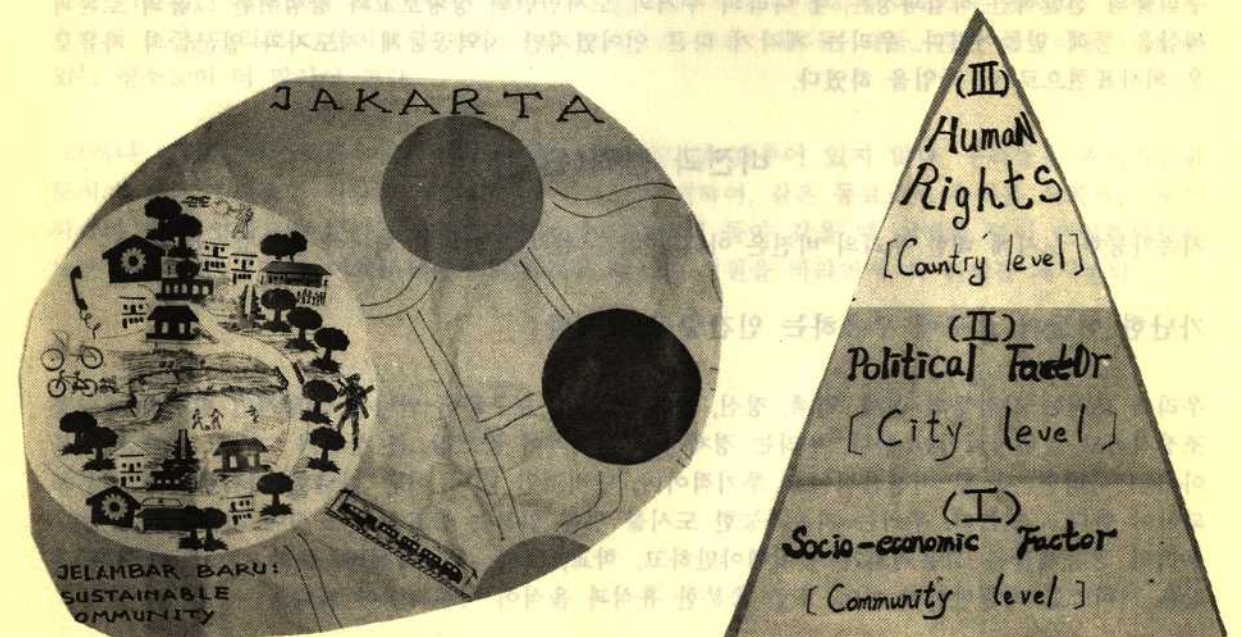
지진이 고베의 주거에 미치는 영향

여러가지 집의 형태에 따라서 그 피해정도가 각각 다른데 모든 재건 비용은 600-700억 달러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시빈민들은 소재가 분명치 않은 곳, 대기소, 가주택 등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받지 않기 위해 멀리가지 못하고 있다. 그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여성과 노인 및 아이들로 취약한 계층이어서 문제는 더 심각하기만 하다.

이들은 현재 살고 있는 곳(대기소, 소재가 분명치 않은 곳, 가주택 등)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가 각기 다른데 그 중 가주택에 사는 경우의 문제를 예로 몇가지 살펴보자

- ① 주민들은 거주허용 2년 이후 살 곳을 확보해 놓지 못하고 있다.
- ② 가주택 단지는 병원, 학교 등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단도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자주 오지 않는다.
- ③ 주거결정에 있어서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다.(세가지 경우 다 해당)
- ④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 ⑤ 쓰레기 소각장 너무 멀다.
- ⑥ 도로가 자갈이라 휠체어 사용자에게 불편하고 노인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
- ⑦ 주민들이 현재 진행되는 주거문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⑧ 주택분배가 잘 안돼 혼자 사는 집과 다섯식구가 사는 평수가 똑같은 때도 있다.(9평방미터)
- ⑨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이 장애인과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 ⑩ 가주택은 2년이상 못버티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최소한 5년 이상 버텨야 할 것 같다.
- ⑪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다.
- ⑫ 이 좁아서 소음문제와 개인 생활 침해문제가 있다.
- ⑬ 건축자체가 주로 나무라서 습한 날씨에 썩기 쉽다. 대나무와 버섯이 지하에서 자라고 뱀이나 곤충문제가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아시아 가난한 사람들의 견해

필리핀 워크숍을 마치면서 워크숍에 참가한 30명의 활동가들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다음은 공동선언문의 전문이다. (편집자 주.)

우리 대부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9개 나라(호주, 캄보디아,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한국)를 대표하는 빈민지역 지도자들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일꾼들이다. 우리는 96년 1월 15일 부터 17일 까지 필리핀 아티폴로에서 '가난한 이들이 보는 도시'(People's View of the City)라는 주제로 첫번째 지역회의 워크숍을 가졌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의 나라 밖에서 이러한 모임을 갖기는 처음이었다.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 손쉬운 과정을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꿈과 열망을 성취하는 길이기도 하다.

목적

우리들은 다음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한다.

1. '도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도자들의 의견과 생각을 교환하는 포럼을 제공한다.
 2.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해 우리들의 전망을 명확하게 공식화한다.
 3. 세계 주거회의(하비다트)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를 우리모두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행동방식을 발전시킨다.
- 이것은 우리들이 세계주거회의(하비다트)를 준비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도시빈민들이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견해가 잘 경청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들의 전반적인 작업과정은 각 나라의 주거와 도시빈민의 상황보고와 광범위한 그룹의 토론과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졌다. 우리는 제각기 다른 언어였지만 지역공동체 지도자와 일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 이 작업을 하였다.

비전과 원리(원칙)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가난한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간중심의 개발

우리의 도시는 사람들의 신체, 경제, 정신, 문화, 정치적 요구들이 만나는 균형적인 발전의 개념을 조장시키고 실행시켜야만 한다. 우리는 경제성장의 이익이 골프장, 큰 상점가 그리고 인간을 내몰아내는 어떠한 것 등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이며, 낭비적인 것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일하는 동료로서 도시에 머물기를 원한다. 우리의 공동체들은 고용기회가 용이해야만하고, 학교, 육아, 공동체센터, 문화, 공공 교통수단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또한 충분한 휴식과 음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권리 존중

우리 공동체와 지역, 국가는 시민권과 정치권리, 그리고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유엔규약을 포함하여 인권리에 대한 깊은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는 특별히 안전한 주거, 강제철거에 대한 해방, 그리고 안전한 소유권을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인권리를 강조한다. 우리는 인종, 수입, 종교, 성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주택소유 기회 균등, 기본적 서비스들이 주어질 수 있고, 그러한 우리의 권리들은 인식되어지고 존중되어지고 지지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회와 성의 정의

우리공동체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단절을 줄이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와 성의 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 우리는 여성을 종속시키고 주변화하도록 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제거되어진 도시를 원한다.

개발을 위한 민주적, 참여, 그리고 공명한 제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모든 부분들, 즉 주민조직, 정부와 사적인 부분들, 우리공동체와 도시들의 실행과 운영을 포함시킴으로써 참여 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

건전한 환경

우리 공동체는 생태계 사이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되어야 한다. 모든 공동체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즉, 물, 하수처리, 완전하게 처리되는 쓰레기, 공동교통수단의 조장, 그리고 그린지역의 설치. 우리 도시들은 공원, 나무들, 새들, 연못,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들이 더 많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아직 우리들 어느나라에도 잘 갖추어 있지 않다. 우리들은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우리들의 전망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같은 동료로서 우리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일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자신의 지역에 돌아 갔을 때 이러한 일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인 행동과 지원을 바라면서 이 견해를 제시한다.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참가안내

UN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도시정상회담 (the City Summit)

◆ HABITAT II에서 다루는 중요한 두가지 주제

1. 도시화되는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인간 거주 환경 개발
2.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주거

* 주관심은 도시문제에 있다. 따라서 UN회의는 "도시정상회담"으로 이 회의를 부른다. 이번 회의는 "범 지구 행동계획에 관련된 원칙을 받아들이고, 또한 각 국가에서는 "국가행동계획"을 발전시켜서 21세기를 정의롭고, 건강하고 모두에게 안전한 곳으로 만들도록 하자는 것이다.

◆ NGO Forum은 언제 열리는가 ?

- ☞ 1996년 5월 30일 - 6월 14일 열린다. (주요회의는 6월 11일까지이다.)
- ☞ 1972년 스톡홀름에서 인간적 환경에 관한 회의 이후에 NGO와 CBO는 UN의 여러 주요 회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또한 NGO 포럼은 리우환경회의에서부터 비엔나, 카이로, 코펜하겐, 북경 여성대회에 이르기까지 그 연속성을 갖고 있다.
- ☞ HABITAT II의 공식행사는 1996년 6월 3일 - 6월 14일 열리며, 각 국의 국가 및 정부지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NGO Forum은 어디서 열리는가

- ☞ 이스탄불 공과대학 타스키슬라 건물. 이 건물은 이스탄불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건축과 교수들의 거주이다.

◆ HABITAT II (인간주거에 관한 제2차 UN회의)는 어디서 열리는가 ?

- ☞ 이스탄불의 탁심과 마카라는 중심지의 여러지역. 공식회의 장소는 NGO 포럼 장소인 타스키슬라로부터 500m 떨어져 있다.

◆ NGO Forum 누가 참석할 수 있나

다음 사항에 있는 지역지도자들 :

- ☞ 생활환경 개선
- ☞ 도시생활 개선
- ☞ 지속가능한 인간거주지 만드는 것

또한 HABITAT II에 참석함으로써 다음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 인간거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알고 발전시킬 수 있다.
- ☞ 다른 NGO들과 연대하여 HABITAT II 이후 후속작업을 같이 할 수 있다.
- ☞ 전략을 완성시키고 국가 행동계획을 조정하고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 ☞ 국가 및 국제의 여론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간의 거주문제에 관한 NGO의 생각과 접근방법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다.

◆ NGO Forum '96에 관한 정보는 어느 언어로 받아볼 수 있나 ?

- ☞ 주로 영어. 연락할 때는 영어, 터키어, 스페인어, 불어

◆ 재정지원은 ?

- ☞ 없습니다.

◆ NGO Forum에 참석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나 ?

- ☞ 아닙니다. 그러나 각종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 특히 전시공간이나 기구는 등록된 NGO만 사용가능하다.

◆ NGO Forum 96에서는 NGO들에게 어떤 활동이 열려 있나 ?

- ☞ 워 샵, 세미나, 회의, 전시회, 극장, 영화, 음악, 행사 등 내용과 형식은 제한없다.

◆ 활동을 신청하면 확실히 얻을 수 있나 ?

- ☞ 아닙니다.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나 그래도 문제는 생길 수 있다.
- ☞ 수요가 초과되면 기구는 활동계획된 단체가 똑같이 나눠 써야 한다. 이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늦어도 4월 15일 안으로 사무국(이스탄불)에 들어와야 한다. (신청서 등의 형식) 이 이후 신청한 단체는 나머지 공간과 시간에만 기구 등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 사무국에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

- ☞ 참가등록증과 회비를 받은 후 확인사항을 팩스로 보내고 96년 4월 말에 모든 등록자들에게 구체적인 안내서를 보낼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민간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3673-3032)

TEMPERATIVE SCHEDULE FOR HABITAT II (as for April 1995)

EVENT	5/30 Thurs.	5/31 Fri.	6/1 Sat.	6/2 Sun.	6/3 Mon.	6/4 Tue.	6/5 Wed.	6/6 Thur.	6/7 Fri.	6/8 Sat.	6/9 Sun.	6/10 Mon.	6/11 Tue.	6/12 Wed.	6/13 Thur.	6/14 Fri.	6/15 Sat.
LOCAL AUTHORITIES	CITIES' ASSEMBLY																
PROF./RES./ACAD	CONFERENCE																
PRIVATE SECTOR	CONFERENCE																
FOUNDATIONS	CONFERENCE																
NGO MEETINGS	CONFERENCE																
PARLAMENTARIANS	CONFERENCE																
SPIRITUAL LEADERS	CONFERENCE																
LABOUR UNIONS	CONFERENCE																
EXHIBITIONS (HOST COUNTRY)	CONFERENCE																
EXHIBITIONS (UN AND OTHERS)	CONFERENCE																
TRADE FAIR	CONFERENCE																
REGISTRATIONS	CONFERENCE																
PLENARY	CONFERENCE																
PRE-CONFERENCE CONSULTATIONS	CONFERENCE																
BUREAU	CONFERENCE																
COMMITTEE 1	CONFERENCE																
COMMITTEE 2	CONFERENCE																
DRAFT GROUPS	CONFERENCE																
THEMATIC ROUND TABLES	CONFERENCE																
CEREMONIES	CONFERENCE																
Other Activities	CONFERENCE																

3 THEMATIC ROUND TABLES (Strategies for action)

1. People on the Move
2. Making a Living
3. Civic Engagement
4. Urban Physiology
5. Changing Urban Forms
6. Moving about the City
7. A Place to Live
8. Doing by Learning
9. Governance and Democracy

3 EVENTS

1. Film Festival
2. Exhibitions: Best Practices/ Sewage Alternatives/ Mediterranean Cities/ Urban Environment/ Lat-Am. & Europ. Innovations/ Open Space (posters) etc.
3. Convivial Spaces Contests
4. One-Minute Video Festival Opening
5. Opening Concert
6. Exhibitions on Human Settlements in Anatolia and Istanbul history
7. Trade Fair Opening
8. Children's Competition Awards
9. Awards Ceremonies

10. Listening to Junior Citizens*
11. Listening to Senior Citizens*
12. Closing Event (public)
13. Closing Reception
14. Cities' Video Theatres
15. World Environment Day (Awards)
16. "Enjoy Your City"
17. Hotels' Conference-on-TV
18. Electronic daily Consultations
19. Partners' brunch-meeting
20. Also a worldwide TV network programme